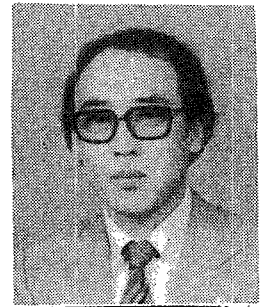


緊急動議 - 에너지節約 (Ⅲ)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고,
아낄 수 있는데 까지 아끼자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지난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 총액이 무려 422억 달러나 되었다. 4천만 국민 1인당 빚이 1천 달러가 넘는 제산이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갚아야 할 외채 利子만도 35억 달러이며, 여기에 국제 금리가 1%만 올라도 年間 2~3억 달러의 이자 부담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외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또다시 외채를 들여 와야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2회에 걸쳐 에너지節約을 위한 緊急動議를 호소해 왔고, 에너지節約을 위한 ABC랄, 산업과 가정에서의 보일러문제, 단열재 문제, 전기 한 등 끄기 문제에 이르기 까지 글자 그대로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이고, 아낄 수 있는데 까지 아끼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건의한다. 물론 좋고, 편하고, 쉬운 습관에 젖어 꼭 그래야만 되는가 하고 반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래야만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에너지節約은 단순한 구호나 시책이 아닌 매우 긴박한 사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시 된 아래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對策이 나올 수 있겠으며, 특히 生産과 消費,

그리고 汚染이라는 3角 관계로 보아 環境保全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書式用紙 16切紙를 18切紙로

官公署를 비롯한 一般 書式用紙는 16切紙로 규정되어 있다. 用紙 16切紙란 全紙를 16토막으로 재단해 쓰는 것으로 보통 시험지라고 하는 크기다.

왜 書式用紙는 16切이어야 하는가? 오랜 습관 때문이라면 이것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18切紙로 줄여 써도 전혀 불편은 없을 것이다.

3年前 나는 이 16切紙와 18切紙를 준비해, 用紙를 많이 쓰는 文人, 代書人, 印刷人 그리고 製紙會社 전문가에 이르기 까지 21名에게 肉眼으로 구별해 볼 것을 시험한 적이 있다. 그때 21名 중 두 사람만이 16切紙와 18切紙를 肉眼으로 구별했을 뿐(그중 한 사람은 우연히 맞춘 것) 19名은 구별을 못했다.

16切紙와 18切紙는 자로 재어 보지 않고는 구별 못한다. 그래서 모든 書式用紙를 18切紙로 줄였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用紙 1연(全紙 500매)에서 시험지가 1,000장 더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年間 약 100만연의 用紙를 쓴다면 그렇게節約해 年間 시험지를 약 1,000,000,000장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2. 5백원 이하의 有料 통행세 없애야

우선, 서울의 江北과 江南을 매일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느끼는 불편은 출퇴근 시간 때의 有料 터널, 다리의 통행세 때문에 겪는 교통 체증이다.

특히 南山 1~3호선의 경우 러시아워가 심할 때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하여 보통 10 여분 이상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소모되는 기름은 통행세 100원 보다 5~6배가 넘는 기름값을 낭비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워가 아닐 때도 100원을 투입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거나, 아주 늦게 서행하고 출발할 때의 기름 소모 값도 통행세 100원을 훨씬 상회하며, 이때에 大氣汚染 물질은 최고도로 排出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에너지 浪費가 아닐 수 없다. 100원을 벌기 위해 1,000원을 잃는 우매한 짓은 이제 그만 끝나야 되겠다.

3. 사치, 허영, 과시성 物品 販賣 제한

所得이 늘어 나니까, 사치하고 허영에 찬 과시성 消費가 늘어가고 있다. 그것도 세계적 有名 브랜드의 옷과 신발에다가 Made in U.S.A 가 아니면 Made in France, Italy, Sweden 이다. 심지어는 日本의 단무지, 간장, 된장까지 잡수셔야 한다니...

그래서 외채는 더욱 늘어 나고, 國內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지고... 정의 사회라는 차원에서 도 과시성 消費는 억제되어야 한다.

방법은 관세를 어마 어마하게 물려, 손을 못 대게 한다던가, 販賣處를 극히 제한하고, 살 때는 住民登錄 초본을 제시한다던가 하여 구매를 불편케 하며, 사치하고 허영에 찬 外製 물건을 갖고 다니거나 쓰는 것을 교양없는 행위, 無識한 행위로 여기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學生들에게 校服을 다시 입히자

솔직히 얘기해, 中高等 學生들의 校服 自律化 이후 우리는 거리에서 學生 대신 방황하는(?) 어린 社會人만 만나고 있다. 특히 女學生의 경우는 가발이라도 써 놓으면 學生인지? 뭔지 분간 할 수 없으며, 청소년 풍기 문제 등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현실이다.

특히 校服自律化 이후, 市内 곳곳엔 有名 브랜드의 스포츠用品 가게에, Junior 상대의 양품점, 美國 도우넛 가게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中高等 學生들의 신발, 바지, T셔츠, 가방 모두에서 세계적 상표가 판을 친다.

學生들에게 다시 校服을 입히자, 우리의 질기고 좋은 옷감으로 부드럽고, 밝은 색과 디자인을 선택해서 아름답고, 명량한 校服을 지어 입히자.

5. 1回用 物件과 自販機 억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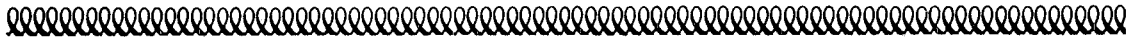
한번 쓰고 버리는 1回用이나 간단히 구매할 수 있는 自販機는 당분간 억제되어야 한다. 쓰기 쉽고, 편하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쓰고 버리는 經濟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간단히 쓰고 버릴 資源이 없기 때문이다.

6. T.V의 아침 방송 없애야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침에 한가하게 T.V나 보고 있을 사람은 非生産的인 무위도식자나 일부 게으른 주부가 아니면 T.V방송 관계자들 뿐일 것이다.

職場人은 출근 준비, 學生은 등교 준비, 주부는 아침 준비, 청소, 빨래등 雜多한 일로 바쁜 시간이다. 그런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닌, 관에 박은 듯한 프로를 내보내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할 때는 없는 것이 나은 것이다. 엄청난 電力 소모에, 바빠야 할 시간을 빼앗는 T.V의 아침 방송은 당분간 再考되어야 한다.

7. 현수막, 표어, 포스터 제한을...

현수막과 표어, 포스터는 계몽과 고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昨今 거리에 나 붙는 현수막과 표어, 포스터는 필요한 것 보다, 불필요한 것이 더 많고, 공연히 감과 종이를 허비하는 듯한 상식적이며, 요식 행위적인 것이 늘어만 간다.

이는 政府의 제도로 부터, 企業의 P.R 團體의 전시 효과적인 계몽에 이르기 까지 各樣各色이다. 가히 현수막, 표어, 포스터 王國 같은 느낌이다.

알릴 일이 있으면, T.V나 Radio, 新聞에 아니면 공공 게시판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New York이나 Paris, London 같은 곳엔 그런 현수막이 없다.

8. 商品 포장 안하기 운동

서울엔, 어마 어마한 백화점이 많다. 商品의 質量, 價格이 어마 어마한 백화점에서는 또 어마 어마한 포장에, 쇼핑백을 곁들여, 포장 서비스는 가히 세계 수준을 초월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얼마 前, L백화점에서 8백원 주고 양말 한 켤레를 샀다. 양말은 두꺼운 고급 껍에 들어 있었고, 그것을 L백화점 전용의 고급 포장지에 싸더니, 다시 끈 달린 종이 쇼핑 백에 담아 준다. 5층 文具部에 가서 대학 노트 3권을 샀더니 또 똑같은 방식으로 포장하고 쇼핑 백에 담아 준다.

하는 꼴이 하도 식상해서, 아래 층에 내려와 다시 양말 한 켤레를 더 사 보았더니 똑 같이

포장하고 쇼핑 백에 넣어 준다. 잡자코 出口의 안내 아가씨에게 포장지를 다 풀어 주고 쇼핑 백도 다 주고, 商品만 들고 나오니까 아가씨는 도리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 본다.

經濟가 어떻고, 不況이 어떻고, 덤핑이 어떻고 그러면서도 백화점의 포장은 好景氣(?)를 만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포장하지 않은 商品만 포장해 주는 상식이 통하는 社會가 되어야 한다. 物件 보다는 포장이 더 좋다는 욕은 이래서 먹고 있다.

9. 자동차 엔진 연소를 높혀야

國產 자동차가 低質이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걸 모양은 外國 수준에 비해 별로 나무랄데가 없으나 엔진은 低質品이라는 얘기가.

특히 연소 효율이 낮아, 기름을 많이 먹고, 배기 가스가 심하다는 얘기가. 外國에서 기름 사다 쓰는 형편에 기름을 허비하게 되는 엔진은 國家經濟의 손실이다.

청컨대, 자동차의 걸치장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엔진 개조에 기업의 양심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10. 출퇴근 때만, 택시 합승 허용 했으면

질서라는 차원에서 택시 합승이 금지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가 귀한 우리네 실정에서 혼자 택시 타고 다니기에는 뭔가 아까운 감이 든다.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이라도 같은 방향의 승객은 같이 탈 수 있는 행정의 묘를 보였으면 좋겠다. 택시 합승을 금지 시킨 이유중의 하나가 요금 문제에 따른 부조리 때문이었다면, 차라리 行政的으로 합승 요금을 공평하게 현실화 시킨다면가... 계속 자동차만 증차시켜 교통 체

증을 부채질 하는 短見은 뭇 무서워 장 못 담 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11. 스포츠 야간 경기 삼가자.

한 여름 밤, 조명을 환하게 밝힌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맛은 別味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別味 때문에 엄청난 電力을 소모해야 한다는 사실엔 어딘가 깨운치 않은 뒷 맛이 남는다.

꼭 야간 경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기가 있는가?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의 결승은 야간 경기여야 한다는 대회 규정이라도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경기는 가급적^{으로} 밝은 대낮에 하자. 대낮에 경기해서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말이다.

12. 모든 것을 조금씩 줄여 보자.

우리나라의 지폐가 외국의 지폐에 비해 조금 큰 것은, 그만큼 화폐 價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세계의 지폐를 보면, 先進國일수록 지폐 크기가 작고 後進國일수록 지폐 크기가 큰 경향이다. 현행 지폐의 크기를 4방 5%씩만 줄여도 유통에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여러모로 利益이 따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통용되고 있는 기차표, 지하철 표도 1/3씩 줄여도 안될 것은 없을 것이며, 각종 고지서, 유가증권 등 줄여서 불편하지 않을 것은 줄일 수 있는데 까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제에 허영적인 商品, 사치성 과시적인 商品의 유통도 법으로 까다롭게 다뤄, 허영과 사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었으면 한다.

흔히, 體力은 國力이라고 한다. 그 國力の 밑바탕이 되는 體力의 증진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물임을 새삼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깨끗

한 공기와 안전한 물을 조성하는 것은 지나친 生産의 增大를 막는 길이며,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길에 있음을 다시, 거듭 호소한다.

지금 우리의 주변엔 아낄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보다 富強한, 보다 쾌적한 환경의 未來를 創造한다는 대 전제라면, 지금의 작은 불편 좁은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로만 先進祖國을 외친다고 해서, 先進祖國이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솔선해서 節約의 지혜와 용기를 先進해 보여줄 때, 비로서 先進祖國의 未來가 밝아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 祖國의 未來를 책임지고 있는 環境人의 先進的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오늘의 現實임을 호소한다.

*

環境保全상담안내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에서는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指導 및 啓蒙事業의 一環으로「環境保全相談室」을 設置運營하고 있는바 本相談室에서는 政府施策弘報, 關係法令解説 公害防止關聯技術相談 自家測定方法指導 其他 建議 및 隘路問題相談등을 無料實施하고 있어 오니 많은 活用을 바랍니다.

상담실 전화번호 (753) 7640.7669
(718) 5836.3410

社団法人 環境保全協會

알림